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목장교회 나눔지

얼음 깨기

그리스도인의 실력

경기를 마친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어떤 계획을 갖고 경기에 임했습니까?” 선수의 대답은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주어진 기회에 하나씩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어서 올해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하자 선수는 대답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획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 다치지 않고 끝까지 경기에 나가는 겁니다. 한 경기 한 경기 빼놓지 않고 출전하는 것이 계획이자 목표입니다.”

이 선수의 인터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실력은 단순함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변수는 언제나 우리 계획을 흔들겠지만 살아가면서 흐름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유유자적하는 마음이 우리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섭리를 알고 믿기에 이런 삶이 더욱 가능하지 않을까요?

교회행사

6월

8-9일	더함 공동체 수련회
9일	어와나 1학기 종강
16일	더가족세미나(4주간)
21-22일	유학생 수련회
28-30일	더원 공동체 수련회

7월

7일	더가족세미나 종강
13-14일	더존이유아유치부여름성경학교
20-21일	초등1,2,3부 여름성경학교
26-29일	중등,고등부 수련회

경배 찬양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과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후렴)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선교

[전세계 선교사]

우간다

- 매달 드러지는 선교사 증보기도 모임 이 선교사들의 연합과 우간다를 위하여 기도로 섬기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 어린이 사역과 태권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 300명의 유단자, 30명의 사범, 3명의 선교사가 일어나도록
- 한국에 있는 자녀들(예진, 예찬, 기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자신들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교회 소식

1. 더가족 세미나 더온누리 하늘 가족 디딤돌 과정을 주일 오후 4시 3층 레위의 장막에서 4주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온누리의 가치와 비전에 함께 하기 위한 과정이 잘 진행되기를 기도해주세요.

2. 교육부서 여름행사 교회학교 일정들을 기억하며 “진리의 말씀과 은혜의 성령님이 역사하는” 여름 행사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3. 수요일예배 찬양대 찬양을 사랑하시는 신중년들이라면 누구라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이제 막 인생 2막을 시작하신 성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고영숙 전도사)

한문장 큰 울림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C.S 루이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행 24:27)

불의를 들추는 말씀

[행 24:24-25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벨릭스는 아내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강론함을 듣고 두려워서 거리를 두는데, 악인들이 당할 장래의 심판에 대해서 듣고 보니 불의한 통치와 남편 있는 여인을 빼앗아 아내로 삼은 방종을 일삼았던 모습이 떠올라 마음에 찢림이 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복음은 주를 사랑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에는 위로와 격려를 주지만, 안락과 편리만 추구하려고 할 때는 늘 불편하고 두렵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과 거리를 둔 벨릭스는 곧장 뇌물을 기대하는 어둠에 빠집니다(26절). '누가'는 벨릭스가 22절에서 무죄가 확실함에도 판결을 의도적으로 미루는 것이 26절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바울에게서 돈을 뜯어내려는 탐욕 때문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최대한 이익을 챙기려는 속셈을 여지없이 간파한 것인데, 이에 바울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 강론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석방을 좌우하는 최고 권력자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2년의 기다림

[행 24:27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을 감옥에 남겨 놓은 채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는데, 만일 바울이 뇌물을 주었다면 풀려났을 가능성이 큼니다. 그러나 뇌물을 주지 않자 벨릭스는 유대인들에게 선심을 얻고자 바울을 가두어 놓은 채 퇴임한 것입니다. 바울을 그냥 풀어 주자니 돈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되고 바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자니 가뜩이나 자신의 통치에 불만을 품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에게 내린 부당한 판결로 로마로부터 추궁 당할 소지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바울 사건을 미결 사건으로 남겨둡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울을 2년이나 아무런 죄가 없고, 로마로 가게 하실 계획이 있음에도 가이사라 감옥에 묶어 두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고 능력 있는 복음의 일꾼으로 하여금 유대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책임을 외면한 벨릭

스의 간교함에 맥없이 당하게 하십니다. 게다가 그 2년간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으시는데, 다만 사도행전 마지막 단락에서 복음의 승리가 언급될 뿐이었습니다.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행 25:11 그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25:9-12은 2년이 지나도 바울을 향한 유대인의 적개심이 가라앉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도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심문받도록 종용하는데, 석방을 위해서라면 더 좋은 제안이었겠지만,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감옥 안에 2년 동안 있으면서 이 상황이 억울한 옥살이나 시간 낭비가 아닌, 로마로 자신을 데려가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달프지만 했던 2년은 로마로 안전하게 이동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시간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23:11) 오늘 나의 고달픈 형편이 주님의 새 일로 부르시는 통로는 아닐까요?

[질문1] 내게는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들려오나요?

[질문2] 지금이 내 삶에서 그 “2년”의 때는 아닌가요? 기다림밖에 할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요?

나눔	주일 말씀 [2년뒤... / 사도행전 24:24-25:12]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삶의 적용점을 나눕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기에서 같이 세워갑니다.	
기도	바른 지식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게 하소서.
	바른 믿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게 하소서.
	바른 행하	위기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소서.